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FT아일랜드 출신 최중훈, 가수 정준영, 로이킴 등 일부 연예인들이 갖은 일탈의 의혹을 받고 있다. 가수 박유천의 마약 혐의에 이어 방송인 에이미가 남자 연예인 A씨를 지목하며 과거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연예계가 그 파장으로 얼룩지고 있다.

박유천 9시간 강도높은 조사…추가조사 예고

신체 대부분 체모…모발로 간이검사 음성 나왔지만 국과수에 검사 의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3)이 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9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유천의 기존 혐의 외에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박유천은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있는 그대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짧게 말했다. “마약 혐의를 부인하느냐” “마약을 강요하고 강제 투약했다는 황하나 씨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유천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 씨(31)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 씨가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A가 권유해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됐고, 잡자는 사이 강제로 투약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뒤 박유천이 A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날 검정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 박유천은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모인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얇은 미소를 띤 채 경찰청 안으로 들어

가 이날 오후 7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유천이 피로를 호소해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추후 일정을 정해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유천은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결단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데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박유천이 황 씨와 지난해 결별한 후 올해 초까지 황 씨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황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6일 박유천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2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박유천이 모발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모를 제모한 상태에서 마약 간이검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유천은 “평소 콘서트 등 일정 등을 소화할 때 제모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마약 반응 검사에 필요한 소변과 모발뿐 아니라 다리털을 채취했다. 일단 간이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약 3주 뒤 나올 예정이다.

수원(경기) |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이 1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 받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이미 ‘프로포폴 공범’ 지목된 휘성 “전혀 사실 아니다”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미국으로 강제 출국된 방송인 에이미(이예이미·37)가 과거 남성 연예인 A와 함께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했다고 폭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심지어 A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

에이미▶



대한 성폭행을 모의했다는 주장까지 냈다. 가수 휘성이 A로 지목되자 이를 강력 부인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에이미는 16일 SNS를 통해 “모든 프로포폴은 A와 함께였다”면서 “그는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였다. 제가 잘못을 저질러 경찰서에 가게 됐을 때, 경찰이 ‘누구와 같이 프로포폴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 입에서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A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성폭행을 무마했다’는 제3자의 전언이 있었다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군대에 있던 A가 새벽마다 전화해 ‘나를 도와 달라. 내 연예인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 네가 안고 가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17일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에이미가 A에 대한 신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가수 휘성이 관련 의

혹을 받고 있다. 에이미가 과거 여러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휘성을 “소울메이트”라고 표현했다는 점,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군 복무 중이었던 휘성도 관련 의혹으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휘성은 당시 허리 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에 따라 정성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휘성의 소속사 리얼솔로웍퍼니는 17일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소속사는 “단연코 그런 사실이 없으며, 만약 상대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이며, 이에 입장을 전하기까지 힘든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휘성은 동료 가수 케이윌과 5월

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국투어 콘서트를 취소했다. 공연 제작사 스프링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부득이한 일정으로 콘서트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조속히 환불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휘성



성접대 정황 포착…승리 구속 임박?

日 투자자 위해 여종업원 동원 생일파티서 성접대 진술 확보도

승리(이승현·29)의 사법 처리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수사 초반 제기된 각종 혐의들이 점차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경찰이 승리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승리가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연 크리스마스 파티에 유혹업소 여종업원들을 동원해 접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이 여성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가 여성들의 경비를 제공해준 것으로도 보고 구체적인 자금 방식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승리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섬 리조트에서 연 생일파티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승리가 유혹업소 여성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남

◀승리



성들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이른바 ‘승리 카톡방’을 통해 승리가 성 접대를 시도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의혹 당사자인 여성들은 “참상은 맞지만 성 접대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승리는 동영상 불법 촬영·유괴 혐의와 함께 클럽 버닝썬과 몽키뮤지엄의 자금 횡령, 경찰관 유착 등 이미 다수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백솔미 기자

#해시태그 킷



‘단발병 유발자’ 소유진

연기자 소유진이 상큼한 봄의 기운을 패션에 담았다. 촬영을 위해 기차에 탄 소유진은 발랄한 매력이 돋보이는 단발 헤어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편안한 니트 티셔츠와 청바지로 패션과 활동성까지 챙긴 ‘피크닉 룩’을 완성시켰다. 설렘 가득한 미소도 분위기를 더욱 화사하게 만든다. 세 아이의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는 동안 외모가 놀라움을 자아낸다. 팬들은 “최강동안” “단발병 유발자가 따로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소유진 #최강동안 #단발병유발

‘예능인’ 이서진 모셔라

OCN 드라마 ‘트랩’ 후 휴식에도 러브콜



이서진

연기자 이서진을 향한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의 관심이 뜨겁다. tvN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시리즈로 예능감을 인정받은 그를 캐스팅하기 위해 여러 방송사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서진이 본

업을 잠시 미뤄두고 다시 예능프로그램으로 돌아올지 궁금증이 커진다.

이서진은 지난달 3일 OCN 드라마 ‘트랩’을 끝내고 현재 휴식 중이다. 그는 ‘트랩’에서 살인사건에 휘말린 아나운서 강우현 역을 맡았다. 사건의 피해자인 것 같지만 뒤에서 모든 일을 조종한 소시오패스라는 반전의 캐릭터로 변신을 꾀했다.

약역으로까지 연기의 폭을 넓힌 그는 최근 차기작을 고심 중이다. 고려 대상 중에는 드라마에 매진하는 사이 여러 방송사가 건넨 예능프로그램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N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 ‘음식당’ 등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이서진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섭외 0순위’로 꼽힌다. 어른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 통명스러운 듯하면서도 상대방을 찡기는 ‘존테레’ 매력으로 시청자의 호감을 쌓은 덕분이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7일 “예능프로그램 제안은 꾸준히 받고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기획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작은 예능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드라마 중 대부분이 출연진 캐스팅을 마쳐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작품판 남은 상황이기도 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